

# 오경 안에서 보편주의 관점으로 본 이방인 포용성에 대한 연구\* \*\*

최종원(서울신대)

## 1. 들어가기

21세기 들어오면서 구약성서의 비평은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역사 비평 방법은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사회적 변동과 함께 문헌 가설의 비관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더 이상 낫설지 않다. '마지막'이라는 용어가 오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특별히 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정체성을 아웨 신앙과 접목하여 소개하고 있다. 오경의 문서설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급변하는 구약학은 문헌사적으로 더 이상 포로기 이전의 저작설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연구들은 오경의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7476).

\*\* 본 논문은 2024년 제126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2024.09.20)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문을 P(제사장계 신학 문헌)와 non-P(비제사장계 신학 문헌)의 본문으로 구분하며, 성경의 저작물은 적어도 페르시아의 산물로 결론짓는다. 심지어 역대기 역사가의 문헌들은 그리스 시대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오경의 저작 시기를 현저하게 낮추며 페르시아 말기나 그리스 시대 초기로 이끄는 연구 방향으로 제안되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구약신학에서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중심으로 신앙의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소개한다. 그 중심에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서가 있으며, 이후 성문서의 사회적 혼란과 문제점들이 오경(광의적으로 구경을 포함)에서 연구주제로 여전히 활발하게 학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그 중심추 역할을 하는 관점으로 포로기 이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עַמ־הָאָרֶץ’(암-하 아레츠)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의 대립과 긴장이 정신사적으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sup>2</sup> ‘그 땅의 백성’(עַמ־הָאָרֶץ)은 혼합주의의 혈통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오경과 심지어 구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이방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가족사의 순환구조에 나타난 본문(창 12-25장)<sup>3</sup>은 소위 이방인으로서 그의 친족들(이스마엘, 모압, 암몬, 에돔 등)의 기원을 소개한

1 L L. Grabbe, “Scribes in the Post-Exilic Temple: A Social Perspective”, S. Honigman, Ch. Nihan, O. Lipschits (eds.), *Times of Transition: Judea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MOSAICS 1; Eisenbrauns: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21), 219-220.

2 대립과 긴장에 대한 본문들은 다음과 같은 본문들을 참조하라. 에스겔 33:24; 느 10: 30-31.

3 ‘아브라함 가족사의 순환구조에 나타난 본문(창 12-25장)’은 이후 ‘아브라함 사이클’로 표현한다.

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제사장계 언약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의 약속과 함께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땅에서”(창 15:13) 객(客)이 된다. 하지만 제사장계 언약본문으로 알려진 창세기 17장은 제사장계와 비제사장계 본문으로 구성되며, 나아가 비제사장계 신학 이후의 본문(창 17:9-14, 27-27)에서 할례를 통한 이방인의 포용성을 보편주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에 창세기 16장은 애굽인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나타난 ‘아웨의 말락’으로 표현된 소위 ‘말락’-본문(מַלְאָךְ-Text)을 소개한다.<sup>4</sup> 특히 이스마엘의 삶 이야기로 등장하는 이방인에 대한 사고가 창세기 17장에서 “영원한 언약”으로서 ‘נֶכֶר’(네카르/이방사람)도 받아야 할례(창 17:13)와 함께 비제사장계 자료 이후 본문(post-dtr)과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오경의 형성사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인에 대한 포용성(Universalism)과 배타성(Particularism)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브라함 가족사의 순환구조에 나타난 본문(창 12-25장)을 중심으로 이방인에 대한 포용성이 소위 제사장계 신학 이후의 문헌(post-P)과 비제사장계 신학 이후의 문헌(post-non-P)에서 오경 형성사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구성사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밝히고자 한다.<sup>5</sup>

4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365-366. 블룸은 이 말락 본문이 후기 첨가문이나 가장 최근의 본문에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스카의 글을 참조하라.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9), 348. 원제는 Jean-Louis Ska, *Cles pour l'interpretation des cinq premiers livres de la bible* (Rome: Lessius, 2000) 성경에서 말락(מַלְאָךְ)의 번역은 ‘천사’, ‘사자’로 나타나고 있다.(개역개정) 본 논문에서는 가독을 위하여 ‘말락’으로 언급하겠다.

5 본 논문에서 쓰이는 ‘제사장계 신학 이후의 문헌’은 “post-P”로, ‘비제사장계 신학 이후의 문헌’은 “post-non-P”로 쓴다.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장 루이 스카, 윗글, 346-387.

## 2. 오경 안에서 이방인의 포용성과 배타성 연구사

벨하우젠(J. Wellhausen)이 포로기 이후의 시기를 유다주의의 발현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학이 침체된 시기로 인정하지만, 오히려 ‘마지막’에 관심을 갖는 1970년대 이후의 학문 경향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100여 년 이상 이끌어오던 역사 비평은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사회적 변동과 함께 문헌 가설의 비평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연구자들은 오경의 저작물을 점차 포로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sup>6</sup> 20세기 문서설 중심의 비평가들의 약진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미 그 힘은 많이 약화되었다. 여전히 모든 문학의 관심사에서 ‘역사’라는 개념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역사 개념인 통시적 관점의 역사에서 공시적 관점의 역사 개념으로 전이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구약신학에서 보편주의 주제가 점차 태동하기 시작했다.<sup>7</sup> 보편성과 배타성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민족사의 이야기 구조에서 진행되면서, 성서에서 소개하는 이스라엘과 타민족 간의 배타성과 포용성에 집중하여 연구되어 왔다.<sup>8</sup>

- 
- 6 1970년대 구약 연구의 시대적 배경을 위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van Seters, “Recent Studies on the Pentateuch. A Crisis in Method?”, *Journal of Ancient Oriental Society* 99 (1979), 663-673; R. Rendtorff, “Between Historical Criticism and Holistic Interpretation. New Trends in Old Testament Exegesis”, *Congress Volume. Jerusalem 1986,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40 (Leyde, 1988), 298-303. 문서설의 위기에 대한 정리와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보라. 장 루이 스카. 윌글, 236-242. 가장 최근 문서설 비평에 대한 글은 다음을 참고하라. K. Schmid, “Von der Diaskeuase zur nachredaktionellen Fortschreibung. Die Geschichte der Erforschung der nachpriesterschriftlichen Redaktionsgeschichte des Pentateuch”,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1-18.
- 7 R. Smend, “Universalismus und Partikularismus in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des 19. Jh.”, ders., *Epochen der Biberlkritik. Gesammelt Studien* 3 (1991), 117-127.
- 8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erwörden, “Das Bild des Fremden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Israel”, F. Schweitzer (ed.), *Kongressband des XII. Europäischen*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에 대한 포용성과 배타성이 서로 혼용되어 긴장감을 형성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오경이다.<sup>9</sup> 오경 안에서 이방인과 관련한 본문들은 레빈(Ch. Levin)의 야웨계 자료(J)<sup>10</sup>를 비판적으로 새롭게 정리한 논문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야웨계와의 작별”(Abschied vom Jahwist)<sup>11</sup>이라는 논문집은 육경에 대한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이제는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야웨계 신학자가 신명기 편저자보다 더 후대로 해석됨에 따라서 야웨계 문서로 소개되는 본문들은 신명

---

*Kongresses für Theologie 18.-22. September 2005 in Berli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326-342.

- 9 이방인 주제에 대한 최근의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 J. Wöhrle, *Fremdlinge im eigenen Land. Zur Entstehung und Intention der priesterlichen Passagen der Vätergeschichte* (FRLANT 24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1); R. Achenbach, “gér-nákhri-tôshav-zâr: Legal and Sacral Distinctions regarding Foreigners in the Pentateuch, ders.(ed.), *The Foreigner and the Law: Perspectives from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R 16;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29-51; A. C. Hagedorn, “Foreigner by Inscription: Determining Ethnicity in Some Cretan Inscriptions”,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16 (2010), 193-210; J. Assmann, “Zum Konzept der Fremdheit im Alten Ägypten”, M. Schuster (ed.), *Die Begegnung mit dem Fremden. Wertungen und Wirkungen in Hochkulturen vom Altertum bis zur Gegenwart* (Colloquium Rauricum 4) (Stuttgart, Leipzig, 1996), 77-99; Ch. Bultmann, *Der Fremde im antiken Juda. Eine Untersuchung zum sozialen Typenbegriff ‚ger‘ und seinem Bedeutungswandel in der alttestamentlichen Gesetzgebung* (FRLANT 153; ;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Ch.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JSOT 1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제20권 1호 (통권 제51집; 2014.3), 12-30; 최중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1권 2호 (통권 제56집; 2015.6), 123-155; 소형근, “역대기 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구약논단」 제18권 2호 (통권 제44집; 2012년 6월), 158-177.
- 10 참고. Ch. Levin, *Der Jahwist*, FRLANT 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11 J. Ch. Gertz, K. Schmid and M. Witte,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vol.315; Berlin u.a.: Walter de Gruyter, 2002).

기 사조의 해석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sup>12</sup> 이런 점에서 렌트토르프(R. Rendtorff)와 그의 제자 블룸(E. Blum), 그리고 판 세터스(J. Van Seters)의 연구들은 후기 신명기계와 야웨계 문헌에 관한 연구 주제에 집중하여 제사장계와 비제사장계 이후 본문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sup>13</sup>

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야웨계 문헌들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 문헌들과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고대 근동의 연구들에서도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자료들이 발굴되고 있다. 특히 판 세터스와 로즈(M. Rose)는 야웨계 저자가 신명기계 저자의 특성을 따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신명기계 저자의 글은 법을 중요시하고 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야웨계 저자는 자유분방하고 인본주의적이며 보편주의적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sup>14</sup>

최근 이러한 신학적 경향에 따라 스카(J. L. Ska)는 좀 더 세밀한 연구 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sup>15</sup> 이런 점에서 최근 뤼터스베어덴(U. Rüterwörden)은 자신의 “신명기”에서 신명기계 저자의 새로운 특성을 제안한다.<sup>16</sup> 그의 관점도 렌트토르프나 블룸, 판 세터스와 마찬가지로 신

1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루이 스카, *윗글*, 255를 참조하라.

13 R. Rendtorff, “Der ‘jahwist’ als Theologe? Zum Dilemma der Pentateuchkritik”, *Congress Volume, Edinburgh 1974*, VTS 28 (Leyde, 1975), 158-166;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1984); J. Van Seters, *Der Jahwist als Historiker*, Theologische Studien 134 (Zürich, 1992).

14 장 루이 스카, *윗글* (2009), 252-253.

15 장 루이 스카, *윗글* (2009), 250-251. 그의 세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신명기와 신명기계 역사 관계, 2) 오경 안에서 본문들 사이의 관계, 3) 법과 설화 사이의 관계, 4) KD와 KP의 통합된 편찬들에서 개별 자료들의 존재 유무성.

16 U. Rüter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신명기의 지혜학고 주제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erwörden, “Das Böse in der deuteronomischen Schultheologie”, T Veijola (ed.), *Das Deuteronomium*

명기가 ‘평신도’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평신도계 신학은 지혜적 요소를 강조하는 ‘지혜학교’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명기 12장에서 ‘제의중앙화와 세속적 도살’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때, 범세속화가 이집트의 엘레판틴의 지방성소개념과 각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살’의 주제를 하나의 ‘보편주의적 효과’(universale Wirksamkeit)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해결을 ‘순례자의 여행’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접근하고 있다.<sup>17</sup>

이미 신명기는 사회적 구조 안에 형성된 성전과 절기법, 조직을 형성하는 공무원직 분야에서 보편주의적 개념을 소개한다. 그것도 1805년에 발표되어 최근까지 이론의 합리성을 지지받은 원신명기(신 12-28장)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열거한 렌트토르프나 볼름 그리고 판 세터즈와 같은 학자들은 저마다의 연구를 통하여 ‘오경의 형성사’를 이해하되, 최근 연구들은 아케메니드 제국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되고 있는데, 그 결과 그리스 문학 세계와 비교하는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sup>18</sup>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의식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방향에 큰

---

und seine Querbeziehun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23-241; 최종원, “신명기에 나타난 ‘소셜트리아스’에 대한 연구,” 「피어선신학논단」, 통권 24집 (2024.2), 1-27; 최종원, “신명기의 비아르타법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통권 76집 (2020.6), 204-230.

17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2006), 80-81.

18 U. Rütterswörden, “Alte und neue Wege in der Deuteronomiumforschung”, *ThL 132* (2007), 877-889. 그리스 문학과 신명기 연구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U. Manthe (ed.), *Die Rechtskulturen der Antike. Vom Alten Orient bis zum Römischen Reich* (München: Beck, 2003); A. C. Hagedorn, *Between Moses and Plato. Individual and Society in Deuteronomy and Ancient Greek Law*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G. Thür(ed.), *Symposium 1985. Vorträge zur griechischen und hellenistischen Rechtsgeschichte*, Akten der Gesellschaft für griechischen und hellenistischen Rechtsgeschichte-6 (Köln, 1989).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요한 관점은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타민족 사이의 관계가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 신학 관점에서 종교적 의식과 절기 제도에 대한 세속화 현상(신 12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추방해야 하는 야웨의 명령을 준수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sup>19</sup> 신명기의 언약 신학은 유배 이후 사회적 종교적 개혁을 통하여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백성, 유일한 성전”이라는 사고를 각인시킨다.<sup>20</sup> 이 사고가 사경 안에서 민족 개념과 맞물려 נַכְרִי(노크리/이방인) 또는 נֶכֶן(네카르/낯선)에 대한 배타성과 보편성의 분위기와 매우 큰 간격을 보여준다는 것이 주요한 논쟁점이다.<sup>21</sup> 이런 점에서 신명기는 이방인에 대하여 배타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 반면, 사경에서는 보편주의의 사고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에 있어서 이방인과의 가족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sup>22</sup>

다만 예외적으로 신명기의 결혼관은 전쟁을 통하여 포로 된 여인과의 결혼(신 221:10-14)을 신명기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개념 역시 창세기의 조상들의 결혼관과 대립되는 개념임은 분명하다. 아브라함가족사의 순환구조에 나타난 본문(창 12-25장)은 친족과의 결혼을 선

19 신 4:38; 7:1, 17, 22; 9:4, 5; 12:2, 29; 18:14.

20 장 루이 스카, 윗글 (2009), 352.

21 신명기 안에서 배타적인 민족 이해로 다음 본문을 참고하라. 신 14:21; 15:3; 28:43; 31:16.

22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오경의 문서설이 무너짐과 동시에 어떻게 자료들의 시대적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오경의 구성은 레위기 신학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오늘날 오경에 사용된 신학적 자료들의 역사적 순서를 스카(장 루이 스카, 윗글, 345)는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배열한다: 계약법전(유배이전), 신명기 법전(왕정 말기), 신명기 신학(왕정 말기와 유배), 사세계 이야기(귀환한 첫 세대), 성결법과 후기 사세계 신학 그리고 후기 신명기 신학(제2성전 시기).



호하지만, 동시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특별한 거부감을 드러 내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역대기 역사가의 결혼관을 예로 들면, 에스라 10장에서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אִשְׁמָא**(아쉬마/죄)로 규정하고(스 10:10), 또한 느헤미야 10장에서도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인 국면으로 살펴보면,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를 이해하는 첫 시도는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사회 정치적 국면의 극단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sup>23</sup> 특히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족과 민장들과 백성의 계보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 가운데 매우 특이한 점은 에스라 2장 59-60절(느헤미야 61-62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몇몇 종족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보도한다. 이런 흐름들은 오경의 제사장계 본문과 중요한 연결점을 있게 한다.<sup>24</sup> 계보 정리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혼합 가정(스 10장: 느 10, 13장)에서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의 분리 문제가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의 큰 사회적 혼돈을 야기했다. 이 문제는 **אִמֵּי הָאֲרָמִים**(암-하아레츠)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대립과 긴장 문제였다.

이와는 반대로 오경 안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방 여인과의 혼인은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신앙해석의 대척점으로 부딪히게 된다.<sup>25</sup> 소위 역대기 역사가는 포로기 이후 상황에서 “모세의 율

23 다음을 참고하라. 최중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123-155.

24 가장 최근의 누가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질문을 족보를 통한 연구를 제안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하라. J. Jeon and L. C. Jonker (eds.), *Chronicles and the Priestly Literature of the Hebrew Bible* (BZAW 528;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21).

25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하갈(창 16장) 그리고 그두라(25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손

법(책)”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정하여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제사장과 학사들은 당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sup>26</sup> 이러한 점에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오경을 중심으로 중요한 질문으로 남았고, 비평 방법에 있어서 서사의 세계와 서술자의 세계(통시적 방법의 문서설 가설이 무너짐과 동시에 공식적 비평 관점의 보완)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오경 안에서 제공되는 이방인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오경의 형성사에 주목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sup>27</sup>

### 3. 아브라함 가족사의 순환구조에 나타난 이방인

아브라함 사이클(창 12-25장)은 post-P와 post-non-P의 병합 과정에서 생긴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sup>28</sup> 이 연구는 여전히 제사장계 기본

---

자 “모압과 암몬”(창 19:37-38), 야곱의 아들 유다와 가나안 사람 수아 그리고 다말(창 38장), 요셉과 애굽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창 41:45), 모세와 미디안 여인 십보라(출 2:21), 특히 욱경의 입장에서 갈렙의 계보는 의미심장한데, 여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하고 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은 “그니스 족속”의 땅을 포함한다.

26 역대기 사가의 “모세의 율법(책)”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대하 23:18; 25:4; 30:16; 스 3:2; 7:6; 느 8:1.

27 성경의 문학적인 성장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저술 시대를 주전 3세기 경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매우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 K. Schmid, “How to Identify a Ptolemaic Period Text in the Hebrew Bible”, S. Honigman, Ch. Nihan, O. Lipschits (eds.), *Times of Transition: Judea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MOSAICS 1; Eisenbrauns: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21), 281-292.

28 최근 활발한 학문적 토론의 현장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F. Giuntoli and K. Schmid (ed),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문서를 정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sup>29</sup> 이런 연구 흐름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예언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sup>30</sup> 또한 예언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전승을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관점이다.<sup>31</sup>

창세기는 크게 원역사(1-11장)와 족장사(12-50)로 나눌 수 있다.<sup>32</sup> 원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며,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에 대한 보편주의 관점을 지향한다. 이 관점은 창세기 9장에서 제사장 신학의 관점으로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sup>33</sup> 제사장 신학은 이 세상에 어떠한 폭력도 심판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소망한다. 창세기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은 각각 세계의

29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다음을 참조하라.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칠곡군: 분도출판사, 2012), 277-284. 그러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본문을 최근 푸뤼(De Pury)의 글로 소개하겠다. A. de Pury, "The Jacob Story and the Beginning of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Th. B. Dozeman and K. Schmid(eds.), *A Fare 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BL 34; Houston: SBL, 2006), 51-72. 제사장계 기본문서-창세기 1:1-2:4a; 5:1-32; 6:9, 11-22; 7:6, 11, 13-16ab, 17-21, 24; 9:1-17, 28-29; 10:1-7, 20, 22-23, 31-32; 11:10-28a, 29-32; 12:4b, 5; 13:6, 11b, 12; 16:3, 15-16; 17:1-13, 15-27; 19:29; 21:1b-5; 23:1-5; 25:7-10, 13-17, 20; 26:20, 34-35; 35:6aa, 11-15; 31:18; 35:9-10, 27-29; 36:40-43; 37:1; 46:6-7; 47:27b-28; 49:1a, 28b, 29-33; 50:12-14; 출애굽기 1:1-5a; 1:7-2:25; 6:2-12; 7:1-5; 7:6-11:10; 12:37a-13:20; 14:1-29; 15:22; 16:1; 19:1; 24:15b-18a; 25:1, 8a, 9; 29:45-46; 40:16, 17a, 33b.

30 장 루이 스카, 윗글 (2009), 349.

31 소위 후기예언서(대예언서와 소예언서)에서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사 29:22; 41:8; 51:2; 63:16; 렘 33:26; 겔 33:24; 미 7:20. 이 본문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예레미야 33장 26절 뿐이다.

32 세 부분 구성(a. 창 1-11장, b. 창 12-36장, 38장, c. 창 37장, 39-50장)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Ch. Gertz(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2. Auflag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2007), 188.

33 U.Rüterswörden, "Der Bogen in Genesis 9: Militärgeschichtliche und traditions-geschichtliche Erwägungen zu einem biblischen Symbol," UF 20(1988), 247-263.

민족을 대표하고 있으나, 모두 노아의 후손됨을 post-P의 저자는 강조한다(창 10:32). 이 상황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발생되고, 인간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 본문의 배경에 스며들어 있는 사고는 인간을 세계로 흩어지게 한 이가 야웨 하나님이지만, 이 개념은 신명기계 신학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후 족장들의 삶의 무대는 이방의 세계로 종종 언급된다. 창세기 11장의 세계관은 보편적인 인류 종교사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다.<sup>34</sup>

창세기의 설화자는 야웨를 통하여 족장사와 함께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גוי גדול(고이 가돌/큰 민족, 창 12:4)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큰 민족”은 이방인 민족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있어서 소위 non-P 본문인 창세기 12장과 P 본문인 창세기 17장과의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sup>35</sup> 창세기 17장의 언약본문에서 아브라함은 אב המון גוים(아브 하몬 고임/“여러 민족의 아버지”, 창 17:4)로 또한 사라는 והיתה לגוים(브하에타 르 고임/“여러 민족의 어머니”, 창 17:16)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 수여와 이방인 할례 문제, 그리고 이스마엘이 גוי גדול(고이 가돌/큰 나라, 창 17:20)가 될 것을 약속한다. 이 주제에 대한 신명기 역사가의 언급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גוי גדול(고이 가돌/“번성한 민족”, 신 26:5)이 되었다고 소개하지만, 오히려 신명기 저자는 7장 7절에서 야웨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배경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המעט, 하므아트)” 때문이라고 보도한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12장 1-4a절은 신명기 역사가(dtrG)의 사고를 담고 있으며(non-P), 이 약속한 내용은 창세기 17장의 אב המון גוים(아브 하몬 하고임/“여러 민족

34 R. Achenbach, “How to speak about GOD with Non-Israelites”,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39.

35 R. Achenbach, *위글*, 39-40.

의 아버지”)라는 개념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본문의 화자는 이 두 개념을 결합하여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을 보완하고 창세기 1-11장의 인류 보편성을 견지하면서, 포로기 이후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에스라-느헤미야의 이방여인과의 혼인가정의 당시 사회-정치-종교적 문제를 아브라함 가족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끌어 가고자 한다.

### 1)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브라함 사이클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이지만, 그의 신학은 창세기 1-11장과 이어진다. 그 연결점이 창세기 11장 27-32절에서 소개된 데라의 족보다. 전통적으로 데라의 족보는 소위 제사장 문서(P)로 소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내용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어도 두 가지 층으로 소개된다.<sup>36</sup> 27절의 주어인 데라 이야기는 31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본문인 28-30절에서 데라가 아닌 데라의 아들들의 상황이 삽입되어 있다. P 본문인 27절과 31-32절은 창세기 12장 1-4a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나머지 28-30절이 전통적으로 J에 속한다.<sup>37</sup> 최근 이 개념이 발전하여 J에 속하는 28-30절은 non-P 본문으로 이해되며, ‘사라의 불임문제’(30절)가 창세기 16장에서 non-p(창 16:1), 17장에서 post-P 해당되고 있다.<sup>38</sup> 이 개념은 궁궐이 분석한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는 J 자료가 기본적이며, 여기에 P가 함께 연

36 C. Westermann,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Genesis II* (Neukirchener Verlag, 1981), 152-155.

37 C. Westermann, *윗글*, 144-145.

38 J. Blenkinsopp, “The ‘Covenant of Circumcision’(Gen 17) in the Context of the Abraham Cycle(Gen 11:27-25:11)”,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146-147.

결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뵘어를(J. Wöhrle)은 제사장계 신학이 기본층을 이루며, non-p 본문이 편집으로서 결합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sup>39</sup> 그 결과 룯이 나타나는 본문들을 간추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1:27(P), 31(P); 12:4b-5(P); 13:6(P), 11b-12a(P); 14:12-16(non-P); 19:30-38(non-P).

이러한 아브라함 가족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창세기 12장 1-4a절이다. 이 본문은 데라의 족보(창 11:27-32)와 관련있다. 데라의 족보는 p와 non-p로 결합되어 있는데, p에 속하는 내용은 27절, 31-32절이며, non-p에 속하는 본문은 28-30절이다. non-p 본문은 1장 4b-5절과 연결되며, 데라의 기본층(p) 11:27절과 31-32절은 창세기 12장 1-4a절과 연결된다. 소위 이 본문은 11장과 12장의 연결 본문으로 제사장계의 신학을 이어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제사장계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창세기 12장은 야웨 본문으로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며 그가 “גוי גדול”(고이 가돌/“큰 민족”, 12:2)을 이룰 것을 축복한다.<sup>40</sup> גוי גדול(고이 가돌/“큰 민족”)은 non-p 계열로 소개할 수 있다.<sup>41</sup> 그 결과 non-P 계열 본문은 데라 가족사의 P 계열 신학의 이야기 곡선을 이어서 non-P의 내용을 담아 가족사의 이야기라기보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개인적 사명의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명은 P계열의 창세기 17장

39 J. Wöhrle, *Fremdlinge im eigenen Land. Zur Entstehung und Intention der priesterlichen Passagen der Vätergeschichte* (FRLANT 24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1), 37-38.

40 “큰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즉 이스라엘 탄생에 대한 견해와 보편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장 루이 스카, 윌글, 366. 스카는 이스라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며, 보편적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보편적 명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한다(366). 또 다른 이해로 뮌스터 오경모델에서, 국가 차원이 아니라 대가족 차원에서 “운명 공동체”로서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에 대한 축복상의 연결점으로 이해한다. 참조.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이종한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12), 176.

41 창 12:2(보편적 모든 나라); 신 4:6, 7, 8, 38(이스라엘); 26:5(이스라엘); 수 23:9(이방 나라); 램 6:22; 50:9; 50:41(이방 나라).

4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미지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개념을 통합한 보편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이 아브라함 사이클에서 등장한다. 결국 아브라함과 친족 롯의 관계는 더욱더 발전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의 관계로 이어진다. 신명기 23장 3절의 모압과 암몬의 부정적 개념이 롯의 전승으로 남아있지만, 이들은 결국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형제 공동체(창 13:8)로서 깊은 우대 관계를 맺고 있다.<sup>42</sup> 이 우대 관계로 인하여 창세기 12장에서 비록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다(창 12:10-20)는 언급이 없지만,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애굽에서 네게브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는 아브라함만 등장하는 단독 이야기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제는 이삭의 태어남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민족으로 소개되는 롯의 이야기(모압과 암몬)를 병합하고 있는 오경 전체 구성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계속해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문은 땅 소유지 문제로 서로 헤어지게 되지만, 14장에서 위협에 처한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 구출된다.<sup>43</sup> 그리고 19장에서 롯은 שְׁנֵי הַמְּלָאכִים(슈네 함라킴/“두 천사”)의 도움으로 죄악이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창 18:20)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 후손에 대한 두 딸의 두려움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사화가 마무리된다.<sup>44</sup>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한 비꼬

42 뵘어를(J. Wöhrle, 윗글, 38)은 13장 1-5, 7-11a, 12b $\beta$ , 13-18절을 12:1-4a 편집자와 같은 계열로 본다.

43 베스터만(윗글, 227)은 이 본문을 적어도 포로기 이후 늦은 시기 또는 후기 유대 문헌으로 취급한다.

44 블룸은 아브라함-롯 순환구조가 적어도 포로기에서 신명기계 전승자료들(D-Tradenten)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성장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구성되었음을 논증

는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고, 동일선상에서 신명기 법은 분명하게 야웨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신 23:3). 오경의 개념을 넘어 사경이나 육경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오경의 형성사에서 이러한 이방 민족에 대한 포용성은 배제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순환구조에서 롯이 암몬과 모압의 선조임을 밝히는 이야기가 배타적인 모습으로 접근하게 하지만, 결국 12장에서 13장으로 전환하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애굽에서 네게브로 이동하는 이 두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방해한다. 그것은 두 이야기가 따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창세기 13장 8절은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는 **אֶרֶץ אֱמֹנִי**(아람 아나흐누/“한 친족(형제)”)임을 강조하는데, 이 표현은 오직 요셉 이야기에서만 나타나고 있다(창 42:13, 32). 형제 공동체는 신명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주제다.<sup>45</sup> 아브라함(이스라엘)과 롯(암몬과 모압)의 관계를 소개하는 이 순환구조는 신명기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인류의 보편성과 함께 이방인을 포용하는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

---

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E. Blum,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ZAW 189; De Gruyter: Walter de Gruyter, 1990), 214 특히 각주 35. 그는 이 구조가 창세기 28장 13-14절로 이어지는 야곱 전승과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 이야기곡선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승은 유다지파 전승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땅과 상속자의 문제는 아브라함 전승에서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는 이스마엘과의 마찰을 통하여 가계의 불화로 그려지고 있다. 유다지파 전승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22장에서 시온산(대하 3:1)으로 소개되는 모리아 땅의 산으로 그 배경을 정하게 된다. 모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곳으로 다윗 전승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 곡선을 담고 있다. 벨하우젠 (J. Wellhausen)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JE 자료로 보는데, 이 전승 안에 제사장계 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다음을 보라.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Verlag von G. Reimer, 1883), 346-347.

45 신명기 1:16, 28; 3:18, 20; 10:9; 13:6; 15:2, 3, 7, 9, 11; 17:15, 20; 18:2, 7, 15, 18; 19:18, 19; 20:8; 22:1, 2, 3, 4; 23:7, 19, 20; 24:7, 14; 25:3, 5, 6, 7, 9; 28:54; 33:9, 16; 3:24.



성을 모세의 율법수여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수여보다 더 오래된 시기로 소급하여 고대 전통의 수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결국 이 이야기의 집합체는 에스라-느헤미야 시대와 충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경의 구성자가 그 시대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형제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논증자료가 되고 있다.

## 2)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아브라함(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공동체로서 이방인(암몬과 모압 민족)의 주제는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으로 이어진다. 창세기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1-6절)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묘사하며, 두 번째 부분(7-14절)은 소위 **מִלְאֵכַּיִם** (말락 아도나이/야웨의 말락) 본문으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만나는 야웨의 천사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다. 이 장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래의 이야기와 함께 출산하는 애굽 여인 하갈을 나란히 대립시키면서 시작하고 있다(1-6절). 임신하지 못하는 사래의 이야기는 P로서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언급되어 있다. 비록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지만, post-non-P 계열의 창세기 12장 1-4a절에서 야웨는 아브람에게 땅과 **גְּוֵי גָדוֹל** (고이 가돌/“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한다. 자손에 대한 야웨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계속되며 언약을 통하여 가나안 땅 수취 언약과 함께 보도된다. 그리고 본문의 설화자는 야웨의 사자 본문을 등장시키면서(7-12절),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10절)과 야웨께서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음(11절)을 소개한다.

전통적으로 창세기 16장은 1a, 3, 15-16절은 P 자료로 소개된다.<sup>46</sup> 사래와의 갈등으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지만, 야웨의 천사가 그녀를 만나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천사와 하갈의 첫 번째 대

46 J. Wöhrle, *Fremdlinge* (2021), 38; C. Westermann, *BKAT: Genesis*, 281.

화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며 이후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장면으로 이어지게 한다(창 21장). 그러므로 창세기 16장은 21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며(post-P),<sup>47</sup> 그 사이에 설화자는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는 장면을 위치시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창 17:4)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게 한다.

블룸은 16장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매우 늦은 시기에 추가된 본문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16장의 ‘야웨의 말락’ 본문은 post-P와 post-non-P로 개정된 본문이라고 주장한다.<sup>48</sup> 본문의 설화자는 오경 형성에 있어서 추가적인 본문을 전달하므로 인하여, 이방인의 외침을 수용하는 야웨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로 야웨의 말락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고, 그 의미를 “야웨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고 설명한다(13절).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야웨 하나님은 종종 post-P와 post-non-P 본문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가인이 죽인 그의 동생 아벨의 호소(post-non-P; 창 3:10), 이스마엘의 울음 소리(post-non-P; 창 21:17), 애굽의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post-P; 출 2:24), 광야에서 백성의 불평 소리(post-non-P; 민 11:1), 애굽에서 호소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post-non-P; 민 20:16) 등과 같다.<sup>49</sup>

신명기 역사가는 열왕기상 8장 41-43절에서 솔로몬의 성전 기도

47 Post-P 본문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 K. Schmid, *윗글* (2015), 11-12. 추방과 관련한 본문은 다음과 같다. 출 34:11; 신 7:1. 신명기 20장 17은 야웨께서 일곱 족속을  $\text{מַרְמָר}$ (헤렘/진멸)이라고 명령하신다. 하렘 사상은 신명기 역사가의 전형적인 어구로 사용되고 있다. 출 32:10, 12; 33:3, 5; 신 2:34; 7:2, 16, 23, 24, 26; 13:15, 17; 20:17; 28:22; 수 8:26; 10:1, 28, 35, 37, 39, 40; 11:11, 12, 20, 21; 사 1:17; 4:24; 20:42; 21:11; 삼상 15:3, 8, 9, 15, 18, 20; 22:11; 왕하 10:17; 13:19; 19:11.

48 E. Blum, *Studien* (1990), 361-382.

49 구경 또는 역대기 역사가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곧 이방인의 외침 또는 기도는 성전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열왕기상 8장 41-43절과 역대하 5-6장.

본문 가운데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상적인 성전 중심의 사회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 소위 post-non-P 본문인 민수기 20장 16절처럼, 야웨께서 광야에서 출애굽 공동체의 호소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고 보도한다. 땅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야웨께서 들으시고 해결하신다. 이처럼 창세기 16장에서 이방인 족속이나 형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표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야웨께서 들으시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야웨-말락 본문은 post-P와 post-non-P의 병합을 통하여 각각 이스마엘 민족에게 번성을 약속하며(post-P), 이방인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야웨를 소개(post-non-P)하므로 보편주의 신관을 보이고자 한다. 계속해서 애굽인 하갈(창 25:12)의 아들 이스마엘 족보(창 25:13-15)가 아브라함-롯 이야기의 순환구조와 이삭 본문과의 병합으로 마무리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친 이스라엘로 종종 소개된다는 것이다.<sup>50</sup> 사사기 8장 24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에 그들은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한다. 역대상 2장에서 이스마엘 사람 예텔(대상 2:17)이 아비가일의 남편으로 다윗 가문과 병합되어 소개되고 있다.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적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자 노력한다. 이에 역대기 설화자는 모리아산과 솔로몬 성전을 연결하고자 하며(대하 3:1), 이러한 해석의 노력은 창세기의 설화자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sup>51</sup>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본문에서도 야웨의 사자 본문(창 22:11, 15)이 위치되어 번

50 대적으로서 이스마엘을 소개하는 곳은 시편 83편 6절뿐이다.

51 '야웨의 산(전)'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나타난다. 민 10:33; 대하 3:1; 시 24:3; 사 2:3; 30:29; 미 4:2; 숙 9:3.

성의 축복을 약속한다.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에서 이방인이 성전을 향한 기도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아웨처럼, 창세기 22장의 아웨의 사자는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른다. 동시에 하늘에서 들으시는 아웨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듯이,<sup>52</sup> 창세기 22장의 아웨의 사자 본문은 post-dtr의 사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창세기 16장에서 소개하는 말락 본문은 다른 본문과의 불연속성과 빈틈 그리고 삭제된 것을 보충하고 재해석하고 있다. 기본 구조의 P 본문인 6절을 통하여 하갈이 도망갔고, 말락 본문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창세기 21장 9절에서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연속된 장면은 말락 본문으로 보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방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웨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인류를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며, 동시에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다.

#### 4. 창세기 17장의 이방인과 할례

창세기 17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sup>53</sup> 하나님(엘로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식을 소개한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

52 신 4:36 “아웨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26:15 “원하던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스 5: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53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Scharbert, *NEB: Genesis 12-50*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143.

나타나서서 국제적이며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4절)<sup>54</sup>가 될 것과 아브람의 개명 그리고 후손의 번성(6절)을 조건 없는 계약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7절)을 세운다(קום + ברית).<sup>55</sup> 9-14절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13절)으로서 할례를 계약의 표징으로 소개한다. 15-22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본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사래의 개명과 함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라는 영원한 언약 보도(19절)로 והיתה לנוים(브하에타 르고임/“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린다. 마지막으로 23-27절은 두 번째 본문(9-14절)의 내용의 반응으로 아브라함 가족구성원의 할례 예식을 소개하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1-8절과 15-21절은 각각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칭되며, 가운데 위치한 9-14절의 본문이 ‘할례’를 통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원한 언약’의 언급은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연속선상에서 세 본문 모두 기록되고 있다. ‘할례’ 주제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설화자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안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

창세기 17장은 제사장계 본문으로 추정되지만, 9-14절은 분명히 1-8절과 15-21절의 본문과 편집사적으로 차이가 난다.<sup>56</sup> 제사장계로 추정되는 2절, 6절, 20절에서 פרה(파라/“번성함”)와 רבב(라바/생육함)에 대한 언약은 1-8절과 15-21절에서 17장의 기본 자료임을 보여준다. 이 내용은 노아 계약을 언급하는 창세기 9장의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54 J. Blenkinsopp, *윗글*, 150.

55 신명기 계약공식은 “ברית + כרת”으로 신명기 5:2; 9:9; 29:1; 29:14, 25 등이다. 계약신학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L. Perlit,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페틀릿은 이 공식을 가리켜 제의가 아니라 의무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p. 14)

56 J. Wöhrle, *Fremdlinge* (2021), 50. 뵘어들은 이 본문에서 제사장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9-14절은 post-P로 이해하고 있다.

자손에 대한 פָּרָה(파라/번성함)과 הִבְרָה(라바/생육함)은 신명기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신명기는 이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다. 제사장계 본문은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개념을 창세기에서 압도적으로 언급하며 요셉 이야기와 연결된 출애굽기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있다(창 1:22, 28; 8:17; 9:1, 7; 17:20; 28:3; 35:11; 47:27; 48:4; 출 1:7).

17장 1a절에서 문장의 주어는 야웨로 등장하며, 1b절에서 이어지는 야웨의 말에는 자신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힌다. 전능한 하나님은 2-8절까지 이어지며, 그 내용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 아브람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명명한다. 1a절의 언급과는 달리, 9절부터 주어는 ‘하나님(엘로힘)’으로 나타나고 아브라함과 대화한다. 그 내용은 10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운다.

1-8절은 야웨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어지되, 전능한 하나님의 말을 다시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로 지속한다. 하지만, 9절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만 편집의 정황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9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 형태가 나타나지만, 10-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2인칭 복수형으로 2인칭대명사 “너희”를 접미형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1-8절의 ‘너’는 아브라함이라면, 9-14절의 ‘너희’는 누구인가? 이 일인칭 복수 대명사 접미사의 주체는 설화자의 현 상황을 암시하며, 9절에서 소개하는 ‘너’와 ‘너의 후손’이 첫 번째 대상자이며, 두 번째로 이스마엘과 같은 이방인 형제 공동체를 연상해 볼 수 있다. 본문에서 그들은 12-13절에 해당하는 계약식에 참여한 일원들일 것이다.<sup>57</sup> 그들은 소위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자들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

57 J. Wöhrle, *윗글* (2021), 49. 창세기 17장 12-13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는 법적 용어로 사용하여 할례의 문제를 언급한다.<sup>58</sup> 특히 12절에서 언급하듯이,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נִכְרִי(벤 노크리/)로 표현하며, 이 용어는 신명기에서 4번(נִכְרִי-14:21; 31:16; 32:12 / נִכְרִי-15:3) 나타난다. 이 용어는 모두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되지 못하고 신명기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이자 비유적으로도 가장 하층민으로 소개하고 있다. 추가본문으로 확인되는 9절 이하의 본문은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은 세겜 족속처럼 비할례자이다(창 34장). 에스겔 44장 9절에서 포로기 시대 할례와 성전 문제를 언급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נִכְרִי(노크리/“이방인”)가 성소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가증한 일이며 언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sup>59</sup> 에스겔의 본문은 대표적인 제사장계 신학을 보여준다. 그러나 17장에서 נִכְרִי(노크리/“이방인”)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할례는 언약이 파기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니며, 오히려 계약적 동맹에 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sup>60</sup>

할례 문제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유월절 예식에서 중요한 주제로 소개된다. 유월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는 할례를 받은 자이다(출 12:48).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 공동체를 가리켜 עֲרֵב(에레브/“잡족”, 출 12:38), 또

58 J. Huddleston, *Eschatology in Genesis* (FAT 57; Tübingen: Mohr Siebeck, 2012), 103.

59 이 문제에 대하여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열된 성전에서 종사하는 노예들(느디님)을 가리킨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Blenkinsopp, “The ‘Covenant of Circumcision’ in the Context of the Abraham Cycle”,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151.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칠칠절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 “객”은 오랫동안 자국민과 함께 살아온 동화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게르’(גֵּר)로 언급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 Achenbach, “gēr-nākhri-tôshav-zâr: Legal and Sacral Distinctions regarding Foreigners in the Pentateuch, *윗글* (2011), 29-51.

60 J. Wöhrle, *윗글* (2021), 49.

는 **קָבָצוֹן**(아스프슝/“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민 11:4)라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예레미야 신학을 이어받은 신명기는 “마음의 할례”(신 10:16; 30:6; 렘 4:4; 9:26)를 강조하지만, 에스겔 신학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겔 44:7, 9). 이 때문에 포로기 할례 문제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 표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점에 미달되지 않고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남자, 심지어 **בְּנֵי נָכְרִי**(벤 노크리/“이방인 자녀”)에게서 사온 노예도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본문은 개방하게 되었다(창 17:27).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언약 사상을 넘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표시로 할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의 개인화는 적어도 포로기를 지나면서 발현된 사고임은 분명하다.<sup>61</sup> 이러한 개념을 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에 따르면 조상들의 죄가 더 이상 자손들에게로 전이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개인화 현상이 포로기 이후로 급속하게 번지게 되었고, 포로기 이후 새로운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신앙관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할례는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할례 예식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집에 속한 개개인 모두가 예식의 대상이 된다. 이 할례 예식에 참여하는 회원들 가운데 **נָכְרִי**(네카르/낫선)의 참여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획기적인 설계도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브렌킨슝

61 J. Wöhrle, *위글* (2021), 50.



(J. Blenkinsopp)의 연구에 따르면,<sup>62</sup> 민족의 표시로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용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 중요한 할례의 언약은 신명기와 예레미야 등에서 언급하는 ‘마음의 할례’를 제외하곤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에스겔 44장 7절과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의 나타나는 **נְתִיבָה**(느디님/“성전 종들”)을 언급하면서 마음과 육체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언급한다. 특히 에스라-느헤미야에서도 이 할례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블렌킨썩은 포로기 바벨론에서 유대의 자기 분리 표시와 정체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강조했으나, 아직 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예식이 등장한 시기를 후기 아케메네스 왕조나 초기 헬레니즘 시대로 주장한다.<sup>63</sup> 이런 면에서 창세기 17장의 편집 또는 추가 본문인 9-14절과 23-27절은 post-P의 영향아래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암시해주며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종교적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아브라함가족사의 순환구조 안에서 아웨의 말락 본문

오경 안에는 소위 ‘천사’ 또는 ‘사자’로 나타나 하나님과 동일시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존재인 **מְלַאכֵי יְהוָה**(말락 아도나이/야웨의 사

62 J. Blenkinsopp, *윗글*(2015), 145-156.

63 J. Blenkinsopp, *윗글*(2015), 152. 몇 가지 사례로 헤로도토스(2:104)는 그리스인들과 접촉한 페니키아인들의 할례 포기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향이 창세기 17장의 배경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그러한 증거자료들로 마카비1서 1:11-15; 2서 4:11-17; 요세푸스의 고대사 12:341에서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고대사 13:257-258; 318-319에서 하스몬 왕조의 할례를 통한 강제 개종 관행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오경 형성사 이해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자) 또는 מלאך אלהים(말락 엘로힘/“하나님의 사자”), 또는 מלאך(말락/“사자”)의 표현이 등장한다. 먼저 오경 안에서 나타나는 ‘야웨의 말락’ 본문을 도표로 정리해 보자.

| 창세기             | 출애굽기             | 레위기 | 민수기             | 신명기 |
|-----------------|------------------|-----|-----------------|-----|
| 16:7, 9, 10, 11 | 3:2              | 없음  | <b>20:14-21</b> | 없음  |
| <b>21:17</b>    | [14:19]          |     | 22:22-35        |     |
| 22:11, 12, 15   | <b>23:20, 23</b> |     |                 |     |
| <b>24:7, 40</b> | <b>32:34</b>     |     |                 |     |
| [28:12]         |                  |     |                 |     |
| [31:11]         |                  |     |                 |     |
| [32:1]          |                  |     |                 |     |
| 48:16           |                  |     |                 |     |

\*[ ] 부분: ‘하나님의 말락’ 본문, **볼드체**: ‘말락’ 본문, 나머지: ‘야웨의 말락’ 본문임.

위 도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말락’ 본문과 이방인을 만나는 ‘말락’ 본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방인에게 나타난 ‘말락’ 본문은 창세기 16장(야웨의 말락), 21장(하나님의 말락)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말락’ 본문은 창세기 22장(야웨의 말락), 24장(말락), 28장(하나님의 말락), 31장(하나님의 말락), 32장(하나님의 말락), 48장(야웨의 말락), 출애굽기 3장(야웨의 말락), 14장(하나님의 말락), 23장(말락), 32장(말락), 민수기 20장(말락)이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이클에 나타나는 이방인과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말락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창세기 16장

이미 앞에서 창세기 16장에 관하여 소개하듯이, ‘야웨의 말락’은 이방여인 하갈을 보호한다. P 본문으로 알려진 창세기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소개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을 다양한 민족의 기준점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며, 이 개념은 창세기 16장과 연결된다. 창세기 1장의 아담을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류의 시작으로 보도하지만, 아브라함은 시작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야웨 신앙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창세기의 족장사는 구성적으로 병합되어 여러 민족들의 포용성과 배타성을 매우 촘촘하고 긴밀하게 나열하고 있다. P를 사용하는 설화자의 관점은 지속적으로 post-P와 post-non-P의 자료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방 민족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아브라함-롯의 순환구조를 소개하는 창세기 16장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긴장을 소개하는 창세기 21장으로도 연결된다.

## 2)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 관련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8-13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14-21절이다. 야웨-말락 본문(17-21절)에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אֱלֹהִים(엘로힘/“하나님”)을 소개한다. 이 본문의 설화자는 그의 자료를 창세기 16장에서 가져와서 연결하고 있다. 21장 9절의 내용은 16장 15-16절(P)과 연결된다. 16장에서 자의적으로 도망간 하갈은 21장 10절에서 타의적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쫓을 것을 요구하며, 16장 9절에서 야웨의 말락이 사라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명하지만,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사라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명한다. 사라와 하갈의 긴장 관계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긴장 관계와 대칭된다. 하갈과 이스마

엘은 광야로 쫓겨난 자이지만, 설화자에게는 이방인 편에 있는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17a절).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하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락이 하갈과 대화하신다(17b절). 그러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하갈과 대화하지 않으신다. Post-P의 하나님은 מלאך אלהים(말락 엘로힘/“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갈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17절에서 מלאך אלהים(말락 엘로힘/“하나님의 사자”)의 신명은 출애굽기 14장 19절 본문에서 나타난다. 이 본문은 מלאך אלהים(말락 엘로힘/“하나님의 사자”)이 주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본문에서 나타나며, ‘백성보다 앞서 간다’라는 구문 양식을 사용하면서, מלאך יהוה(말락 야도나이/“야웨의 사자”) 본문과 상이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내용은 언약법(출 23:20, 23)과 출애굽기 32장 34절과 33장 2절에서 동일한 표현(“나의 말락이 네 앞서 가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공식어구로도 등장한다.<sup>64</sup> 창세기 24장 7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종에게 명하여 알리기를 “(하늘의 하나님 야웨께서) 그 מלאך(말락/“사자”)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고 기록한다. 말락-엘로힘 본문은 post-non-P의 내용을 전달한다. 이 내용은 גוי גדול(고이 가돌/“큰 민족”)을 이룰 것(18절)이라는 약속이며, 이 약속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족사와 병합된다. 21장은 post-P와 post-non-P의 병합된 본문으로 이해된다. 보편적 관점에서 야웨-말락 본문의 야웨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64 이러한 표현을 가리켜 ‘선봉대 모티브’(Vanguard motif)라고 부른다. 이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출애굽기와 정복 전승에서 주요한 내용을 사용되고 있으며, 첨가된 계약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D. P. Wright, “The Covenant Code Appendix and Neo-Assyrian Sources”, C. Gertz, B. M. Levinson, D. Rom-Shiloni and K. Schmid (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71. ‘선봉대 모티브’에 해당하는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창 24:7, 40; 출 13:21-22; 14:19, 24; 32:1, 23, 34; 33:2; 민 20:16; 신 31:3, 6, 8.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본문도 포함된다. 창 16:7-11; 21:17; 31:11; 32:2; 48:16; 민 22:22-35; 수 5:13-15; 10:10; 삿 5:23; 13:6-9; 삼상 29:9; 삼하 14:17, 20; 19:28; 24:16-17; 왕상 19:5-8, 35; 왕하 19:35; 사 63:9.

방인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3)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서도 야웨-말락 본문이 두 부분으로(11-14절; 15-19절) 기록되고 있다. 본문은 첫 번째 결론은 14절에서 일어난다. 15절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보도한다.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야웨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보호한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들을 대신하여 숫양을 번제로 드리고, 14절에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한다. 또한 이곳은 “여호와와 산”으로 불린다. 창세기 22장 본문은 다양한 자료들이 등장한다. 1절은 이야기의 화자가 엘로힘을 주어로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곧 2절에서 야웨를 주어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한다(“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이어서 3절은 다시 엘로힘으로 전환되며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2절의 야웨 명령을 10절까지 수행한다. 이때 11절에서 주어로 등장하는 **יהוה מלאך**(말락 아도나이/“야웨의 사자”)은 14절까지 첫 번째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 경외 사상(12절)과 야웨 본문인 2절의 모리아 땅의 산이 야웨의 산(14절)으로 명명된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으로 야웨의 전을 지은 곳으로 등장한다. 야웨의 말락본문(15-19절)은 자손의 번성과 야웨의 말을 준행하므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한다. 야웨의 말락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자신의 믿음을 승인받는다.

15절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만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이미 12절에서 비준에 대한 승인절차가 끝이 났다. 그럼에도 다시 두 번째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설화자가 의도적으로 약속에 대한 주

제를 시험 이야기와 연결하려는 것으로 본다.<sup>65</sup> 두 번째 야웨의 말락 본문은 설화자의 의도적인 추가 본문으로 이해되며, 이 마지막 본문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어려운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4) 창세기 24장

이 본문에서 두 번 ‘말락’ 본문을 만나게 된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야웨의) ‘말락’을 ‘너(종) 보다 앞서 보내게 된다.’ ‘말락’은 이삭의 아내를 만나도록 도움을 주며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게 한다. 또한 non-P 본문인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에돔 족속과 대치되었을 때, 자신들의 정체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야웨가 보낸 ‘천사’(말락)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야웨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말락’을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냈다. 설화자는 어느덧 야웨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모습에서 간접적으로 ‘말락’을 보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본문은 유배 이후 이야기로 매우 늦은 시기로 고려하고 있다.<sup>66</sup> 이 본문은 post-non-P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소결

아브라함 사이클에서 말락 본문은 야웨의 말락 또는 하나님의 말락, 또는 말락(천사)로 나타난다. ‘말락’은 post-P와 post-non-P의 병합된 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제사장계의 축복인 자손의 번성함과 인도하심,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

65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입문」 (2009), 161.

66 장 루이 스카, 윗글, 368.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방인이든 비이방인이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의 본문에서 신적 존재의 모습으로 불연속성을 보이는 본문 간의 깨짐 현상 등, 이야기 자료의 구성을 연결하여 주는 마지막 작품의 형태를 구성해주고 있다.

아브라함 사이클은 P 본문인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8-25장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사장 언약 신학을 기반으로 자손의 번성함과 할례 문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등 각각의 신학 주제에 따라 이방인을 포용하는 보편주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6. 나가기

아브라함 사이클(창 12-25장)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형제 공동체로서 인식하며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롯의 가족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으로 데라 가족과 함께 아브라함 가족사와 나란히 병합되었다. 이러한 병합의 목적은 제사장계 이후 신학과 비제사장계 이후의 신학의 구성자의 포로기 이후 또는 헬레니즘 시대의 확장과 맞물려 이스라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은 제사장계 신학에 기반을 두면서, 이방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말락’ 본문을 통하여 설화자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

구성사적으로 post-P와 post-non-P의 혼합 본문들이 서로 병합되면서 포로기 이후 적어도 제2성전 시대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아브라함 가족사에 반영되고 있다. 공시적 관점으로 볼 때, 그 마지막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 מלאך(말락/“사자”) 본문은 이전

www.kci.go.kr

시대의 사고를 수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사관으로 발전하여 배타적 민족주의를 일부분 극복하고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민족주의를 넘어서 형제 공동체 안에 있는 **בְּנֵי־נֹכַח**(벤 네카르/“이방인”) 그룹들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창세기 1장 28절의 번성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브라함 사이클은 비록 이방인과 대립관계와 긴장 관계가 있으나, **מִלְאָךְ**(말락/“사자”) 본문을 통하여 P의 약속을 수정 보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대사명(창 12:1-4a)의 주제를 전개시킨다. 이렇게 아브라함 사이클은 post-P와 post-non-P의 구성자가 P와 non-P 자료를 포함한 데라 족보를 필두로 하여 롯의 가족사와 연계하며, 다른 한편으로 제사장계 신학을 반영하는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16장과 18-25장에 이르는 아브라함-롯 주기구조와 아브라함-이삭-이스마엘 주기구조의 형성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주기구조의 병합본문은 역사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반성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고대 아브라함 전승사를 받아들여 새롭게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가족의 붕괴와 포로기 이후 회복에 대한 희망이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오경 안에서 아브라함 사이클은 기존의 P신학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적으로 제안된 **מִלְאָךְ**(말락/“사자”) 본문은 주된 본문의 내용을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해석이 필요할 때 사용되며 한층 더 완성된 성경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모든 **מִלְאָךְ**(말락/“사자”) 본문은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מִלְאָךְ**(말락/“사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이러한 개입을 통하여 설화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모습으로 P와 non-P의 사고를 반영하면서 마지막 본문 형태(post-P+post-non-P)로 전하고 있다. 그 본문의 마지막 형태 속에서 **מִלְאָךְ**(말락/“사자”) 본문은 특별히 중



교 및 사회인류학적으로 보편주의의 사관을 담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형제 공동체로서 수용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오경의 최종 구성자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문제를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며, 나아가 새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이방인을 포용하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관을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제20권 1호 (통권 제51집; 2014.3), 12-30.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서울: 분도출판사, 2012).
- 장 루이 스카, 「모세오경입문」 (박요한 영식 옮김), (서울: 성바오로, 2009). 원제 Jean-Louis Ska, *Cles pour l'interpretation des cinq premiers livres de la bible* (Rome: Lessius, 2000).
- 소형근, “역대기 역사서에 나타난 이방인 이해”, 「구약논단」 제18권 2호 (통권 제44집; 2012년 6월), 158-177.
-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1권 2호 (통권 제56집; 2015.6), 123-155.
- 최종원, “신명기에 나타난 ‘소셜트리아스’에 대한 연구”, 「피어선신학논단」, 통권 24집(2024.2), 1-27.
- 최종원, “신명기의 비아르타법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통권 76집(2020.6), 204-230.
- Achenbach, R., “How to speak about GOD with Non-Israelites”,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35-51.
- Achenbach, R., “gêr-nâkhri-tôshav-zâr: Legal and Sacral Distinctions regarding Foreigners in the Pentateuch, ders.(ed.), *The Foreigner and the Law: Perspectives from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R 16; Wiesbaden:

- Harrassowitz Verlag, 2011), 29-51.
- Assmann, J., "Zum Konzept der Fremdheit im Alten Ägypten", M. Schuster (ed.), *Die Begegnung mit dem Fremden. Wertungen und Wirkungen in Hochkulturen vom Altertum bis zur Gegenwart* (Colloquium Rauricum 4) (Stuttgart, Leipzig, 1996), 77-99.
- Blum, E.,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1984).
- \_\_\_\_\_, *Studien zur Komposition des Pentateuch*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0).
- Blenkinsopp, J., "The 'Covenant of Circumcision'(Gen 17) in the Context of the Abraham Cycle(Gen 11:27-25:11)",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145-156.
- Bultmann, Ch., *Der Fremde im antiken Juda. Eine Untersuchung zum sozialen Typenbegriff 'ger' und seinem Bedeutungswandel in der alttestamentlichen Gesetzgebung* (FRLANT 15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Gertz, J. Ch., Schmid, K. and Witte, M.(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vol.315; Berlin u.a.: Walter de Gruyter, 2002).
- Gertz, J. Ch.(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2. Auflage. (Vandenhoeck & Ruprecht: Göttingen, 2007),
- Giuntoli, F. and Schmid, K.(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Göttingen: Mohr Siebeck, 2015).
- Hagedorn, A. C., "Foreigner by Inscription: Determining Ethnicity in Some Cretan Inscriptions", *ZAR 16* (2010), 193-210.
- \_\_\_\_\_, *Between Moses and Plato. Individual and Society in Deuteronomy and Ancient Greek Law*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van Houten, Ch., *The Alien in Israelite Law* (JSOT 1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Huddleston, J., *Eschatology in Genesis* (FAT 57; Tübingen: Mohr Siebeck, 2012),
- Jeon, J. and Jonkerm L. C.(eds.), *Chronicles and the Priestly Literature of the Hebrew Bible* (BZAW 528;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21).
- Levin, Ch., *Der Jahwist* (FRLANT 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Manthe, U.(ed.), *Die Rechtskulturen der Antike. Vom Alten Orient bis zum Römischen Reich* (München: Beck, 2003).
- Perlit, L.,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9).
- de Pury, A., "The Jacob Story and the Beginning of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Th, B. Dozeman and K. Schmid(eds.), *A Fare 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SBL 34; Houston: SBL, 2006), 51-72.
- Rendtorff, R., "Der 'jahwist' als Theologe? Zum Dilemma der Pentateuchkritik", *Congress Volume, Edinburgh 1974, VTS 28* (Leyde, 1975), 158-166.
- Rüterswörden, U., "Alte und neue Wege in der Deuteronomiumforschung", *ThL 132* (2007), 877-889.
- \_\_\_\_\_,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 \_\_\_\_\_, "Das Bild des Fremden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Israel", F. Schweitzer (ed.), *Kongressband des XII. Europäischen Kongresses für Theologie 18.-22. September 2005 in Berli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326-342.
- \_\_\_\_\_, "Der Bogen in Genesis 9: Militärgeschichtliche und traditions- geschichtliche Erwägungen zu einem biblischen Symbol," *UF 20*(1988), 247-263.
- \_\_\_\_\_, "Das Böse in der deuteronomischen Schultheologie", T Veijola(ed.), *Das Deuteronomium und seine Querbeziehung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223-241.
- Scharbert, J., *NEB: Genesis 12-50*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 Schmid, K., "How to Identify a Ptolemaic Period Text in the Hebrew Bible", S. Honigman, Ch. Nihan, O. Lipschits (eds.), *Times of Transition: Judea in the Early Hellenistic Period* (MOSAICS 1; Eisenbrauns: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of Tel Aviv University, 2021), 281-292.
- van Seters, J., *Der Jahwist als Historiker* (Theologische Studien 134; Zürich, 1992).
- Smend, R., "Universalismus und Partikularismus in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des 19. Jh.", ders., *Epochen der Biberlkritik. Gesammelt Studien 3* (1991), 117-127.
- Thür, G.(ed.), *Symposion 1985. Vortrage zur griechischen und hellenistischen Rechts- geschichte, Akten der Gesellschaft für griechischen und hellenistischen Rechts- geschichte-6* (Köln, 1989).

- Wellhausen, J.,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Verlag von G. Reimer, 1883).
- Westermann, C.,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Genesis II* (Neukirchener Verlag, 1981).
- Wöhrlé, J., *Fremdlinge im eigenen Land. Zur Entstehung und Intention der priederlichen Passagen der Vätergeschichte* (FRLANT 24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1).
- Wright, D. P., “The Covenant Code Appendix and Neo-Assyrian Sources”, C. Gertz, B. M. Levinson, D. Rom-Shiloni and K. Schmid (eds), *The Formation of the Pentateuch* (FAT 11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47-85.

검색어

제사장계 이후 본문, 비제사장계 이후 본문, 보편주의, 이방인, 아브라함 가족 주기, 할례

[ ABSTRACT ]

## A Study on the Inclusivity of Gentiles from a Universalist Perspective in the Pentateuch

Jong-Won Choi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larif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mation history of the Pentateuch, that the inclusiveness of the Israelites toward Gentil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o-called post-P and post-non-P texts concerning the family history cycle of Abraham (Genesis 12-25) using compositional and synchronic methods.

The texts concerning the family history cycle of Abraham (Gen 12-25) emphasize inclusiveness by recognizing Gentiles as a community of brothers centered around Abraham. Lot's family, the ancestors of Ammon and Moab, was merged with the Terah family along with Abraham's family history. The purpose of this merger is to express the need to reestablish Israel's identity after the exile or the Hellenistic expansion of the theology of the post-priestly and non-priestly lineage. The lives of Hagar and Ishmael are based on the theology of the priestly lineage, and God hears the voice of the foreigners' suffering and sends 'Malak' to solve the problem.

From a compositional perspective, the mixed texts of post-P and post-non-P are merged, reflecting the efforts to find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of Israel since at least the Second Temple period after the exile in the Abrahamic family history. From a synchronic perspective, the

www.kci.go.kr

‘Malak’(kalm)-text,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its final form, accepted the tradition of the previous era while developing into a new historical perspective, overcoming some of the exclusive nationalism and aiming for universalism.

The final composer of the Pentateuch seeks to reorganize the identity issue of the community of faith in Israel as the new era approaches. He overcomes the social issues of the identity of Israel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actively seeks to reinterpret his historical perspective by embracing Gentiles as members of the new Israel.

key words

Formation of the Pentateuch, Post-P, Non-post-P, Universalism, Gentiles, the texts concerning the family history cycle of Abraham, Circumcision

투고일: 2024년 10월 15일

심사일: 2024년 11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15일

www.kci.go.kr